도하아시안게임 한달 앞으로 ❸ 베일 속 北 어떻게 준비하나

선수단 180명 파견…5위 목표

공화국선수권 대회 통해 실전기량 쌓아
체조·여자축구·탁구 등서 금메달 자신

"실전감각을 끌어올려라."

북한은 전국 규모의 국내대회를 통해 선수단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30일 앞으로 다가온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에 대비하고 있다.

10월초부터 열린 종목별 '공화국선수권대회'를 통해 출전선수들의 기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24일 "제15차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국내의 많은 선수들이 맹렬한 훈련을 하고 있다"며 "공화국선수권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마당"이라고 소개했다.

공화국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의 메달권 진입이 예상되는 탁구 등 일부 종목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선수단 180여명을 파견해 5위권 입장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과 한 조에 속한 여자축구는 북한의 메달권 진입 뿐 아니라 금메달까지도 점쳐지는 종목 중 하나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달아오른 실력을 얼마나 보여줄지 주목된다.

또 중국과 금메달 레이스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 체조도 북한의 메달박스 중 하나로 올해 인도 수라트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북한은 금 3, 은 3, 동메달 4개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 대회 마루와 도마에서 2관왕에 오른 남자부의 리정선과 도마에서 우승한 여자부 홍은정이 유망주다.

전통적으로 북한이 깜짝 강세를 보여온 마라톤에서도 이번 대회 어떤 성적을 수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27세의 리경철은 2005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2시간20분35초로 32위에 올라 차세대 유망주로 떠올랐고 4.25체육단의 조분희도 제3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우승 이후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북한 마라톤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고 있다.

또 레슬링과 유도와 같은 격투기종목은 '국방체육'을 모토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북한의 선전이 점쳐지는 종목이지만 국제사회와의 기술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메달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수영과 육상 등의 종목에서 나이 어린 유망주의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

북한판 '정지연'으로 평가되는 올해 16살의 신진희 선수는 공화국선수권대회 수영종목 혼영 200m에서 북한 국내기록을 두 차례나 경신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평영 100m와 200m에서 금메달을 따 3관왕에 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메달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 육상은 이번 대회에 육상청년선수권대회 트랙 800m와 1천500m에서 우승한 김영남 등 신세대를 출전시켜 국제경험을 쌓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극전사들 "최선 다하겠습니다" 1일 태릉 선수촌에서 열린 도하 아시안게임 D-30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기자회견에서 각 종목 주요선수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빗장수비'를 뚫고 1일 오후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6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에서 한국 지소연이 이탈리아 밀착 마크를 뚫고 문전으로 달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바르셀로나 '복수혈전' 실패

첼시 상대 홈 경기서 2-2 비겨

첼시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복수혈전' 시나리오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FC 바르셀로나는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누캄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4차전 홈경기에서 2-1로 앞서나가다 경기 종료 직전 첼시의 코트디부아르 출신 골잡이 디디에 드로그바에게 동점골을 내줘 2-2로 비겼다.

이로써 첼시는 3승1무(승점 10)로 A조 1위를 지켰고 바르셀로나는 1승2무1패(승점 5)로 3위에 처졌다.

같은 조의 베르더 브레멘(독일)은 레프스키 소피아(불가리아)와 원정에서 상대 자책골에 프랭크 바우만, 토르스텐 프링스의 릴레이 골까지 합쳐 3-0으로 이기며 2승1무1패(승점 7)로 조 2위를 지켰다.

C조에서는 리버풀이 보르도(프랑스)와 홈경기에서 스트라이커 루이스 가르시아가 2골을 터트리고 미드필더 스티븐 제라드가 득점포를 가세해 3-0으로 이겼고, 아인트호벤도 티미 시몬스와 아루나 코네의 연속골로 갈라타사라이(터키)를 2-0으로 제압했다.

리버풀과 아인트호벤은 이로써 각각 3승1무(승점 10)씩을 기록하며 남은 조별리그 2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밖에 B조의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D조의 발렌시아(스페인)도 조 1, 2위에게 주어지는 16강행 티켓을 확보했다.

스포츠중계

2일(목)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4차전〈아스날-CSKA모스크바〉(07 : 00·MBC ESPN)

▲세계 태권도 한마당 개인 예선(14 : 00·KBS SKY SPORTS)

▲대통령배 전국유도선수권대회(14 : 10·KBS1)

▲AFC 청소년 축구 선수권〈한국-인도〉(18 : 20·Xports, SBS스포츠)

3일(금)

▲PGA투어 더 투어 챔피언십 1R(02 : 00·SBS스포츠)

▲UEFA 챔피언스리그〈토트넘-브뤼헤〉(03 : 00·KBS SKY SPORTS)

한국 3전 3패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

한국이 2006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에서 세계의 높은 벽을 절감하며 3전 전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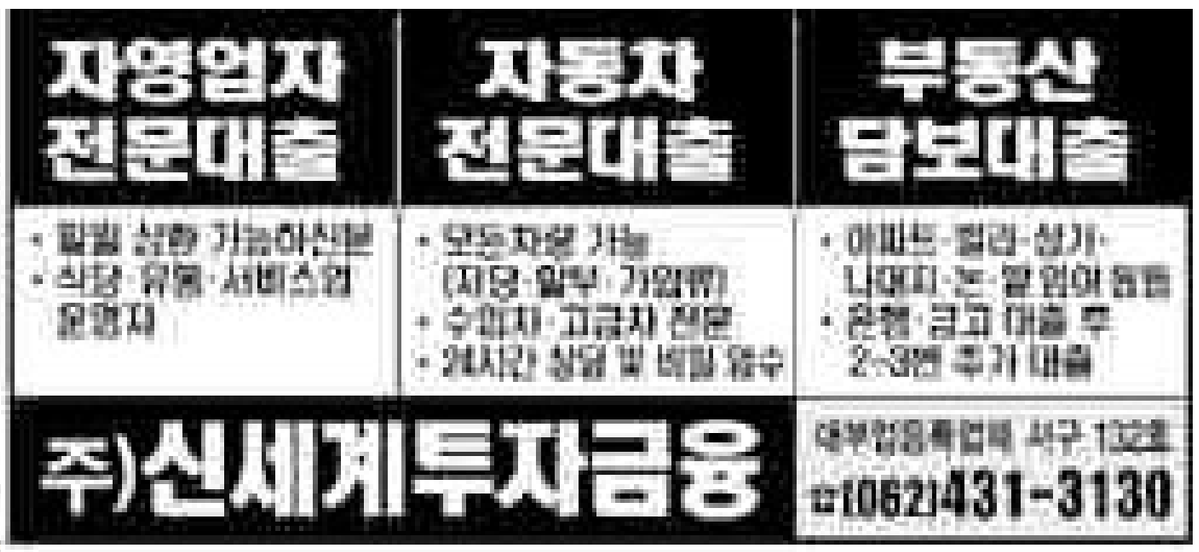
안종관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1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A조 이탈리아와 최종전에서 박은정(여주대)이 그림같은 동점골을 뽑았지만 파트리시아 파니코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1-2로 무릎을 꿇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 한국은 브라질(4위), 캐나다(10위), 이탈리아(10위)를 맞아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개인기와 골 결정력에서 열세를 보여 1승도 챙기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42분 미드필더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초리의 크로스를 수비수 홍경숙이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게 골문에 빨려들어가 자책골로 먼저 실점했다.

그러나 후반 3분 박은정이 기막힌 동점골을 뽑아냈다.

김주희(현대제철)가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프리킥을 얻어내자 박은정은 거의 각도가 없는 사각에서 절묘하게 휘어지는 오른발 프리킥을 감아차 '여자 아주리 군단'의 골문을 꿰뚫었다.

한국이 동점골에 기뻐하는 사이 반격에 나선 이탈리아는 후반 9분 파니코가 결승골을 끌어냈다. 이탈리아는 1승1무1패가 됐지만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